

『국조오례의』 의례 시행과 개정 논의

박수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한국사학 전공
harksa08@gmail.com

- I. 머리말
- II.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
- III. 『국조오례의』 개정 논란
- IV. 맺음말

I. 머리말

국가의례란 나라와 왕실을 운영하는 질서나 의식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운영을 담당해왔던 ‘오례의’가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유지하더라도, 그리고 오례서에 담긴 의식 절차의 항목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의 사상과 이념이 반영된 의례서의 내용이 같을 수 없었다. 성리학을 국시로 내건 조선에서도 500년 긴 세월 동안의 사상과 이념의 변화를 의례서에 담아내야 했다. 즉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이하 『속오례의』라 함)는 주자성리학의 이해와 변화 속에서 같은 시간을 겪으며 함께 변화해왔다. 그러므로 의례서에는 자연스럽게 변화된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국가례는 오례, 사대부례는 주자가례의 적용을 받으며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어오던 조선의 의례는 국가의 이념과 사상에 따른 변화를 함께 겪게 된다. 곧 주자성리학의 이해와 실천에 따라 조문의 해석, 그리고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일어나는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 의례서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그 성과물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의례 연구를 오례(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라는 영역으로 나누어보면 이제는 거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꽤 많아졌다. 그 시기가 조선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¹⁾ 조선 후기 전례서 연구는 아직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실망스런 정도는 아니다. 조선 후기 의례 연구라고 하면 그 연구 대상은 영조 대를 대표하는 『속오례의』를 손꼽을 수 있는데, 몇 편 되지는 않지만 이미 이 의례서의 편찬 연구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²⁾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례서 편찬은

1)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일조각, 1996);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한길사, 1995);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진단학회, 2008);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3(역사실학회, 2010); 김혜영,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조선시대사학회, 2010); 정만조, 「조선의 예치와 『국조오례의』 편찬」, 『조선왕조의 五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아카데미, 2012).

2) 이영춘, 「朝鮮後期の 祀典의 再編과 國家祭祀」, 『한국사연구』 118(한국사연구회, 2002); 이현진, 「『國朝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의 편찬과 의의」, 『규장각 소장 왕실

당시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도 의례적 측면만 강조되어왔다. 그래서 정치사와 연계된 의례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의례 연구에 정치사가 개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치사를 배제하고서는 결코 의례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의례서 편찬이 정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한 근원 또는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려 한다. 그 작업은 먼저 오례의와 주자가례의 충돌이라는 의례 논쟁을 세 가지 쟁점 위주로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조오례의』 개정 논란을 의례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다.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은 첫째, 복제문제, 둘째, 친영례의 시행문제, 셋째, 천릉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는 『국조오례의』 개정 논란을 다룰 것이다. 특히 개정 논란을 일으키는 의례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보려 한다. 16세기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논란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적 사건인 예송논쟁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예송논쟁이 남인과 서인의 예학적 대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의례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더욱이 서인이 다시 노·소론으로 분파되면서 이들은 18세기 의례제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조오례의』 개정에서 다루어지는 학파·정파에 대한 논의는 조선 후기 의례 제정자들의 정치적 연원을 고려한 것이다.

II.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

『국조오례의』와 『경국대전』의 완성 이후, 정계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념적인 문제에 천착하며 조선을 성리학적 이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매진하였다. 성종 대의 김종직(金宗直, 1431-1492)-김굉필(金宏弼, 1454-

자료 해제·해설집』 4(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탁신희, 「『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왕권의 位相」,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송지원, 「영조대 儀禮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한국문화』 50(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이영춘, 「영조대 법전과 예제의 재정비」,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504)을 잇는 조광조(趙光祖, 1482-1519)³⁾ 등,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중종 대에 대거 등용되어 훈구세력의 정치 풍토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주자성리학의 이해 정도가 깊어감에 따라 예학의 탐구에 몰두하였다. 즉, 조선 중기 사람들은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절차를 성실하게 실행하면서도 주자가례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의례의 세부적 조항과 철학적 연구에 집중하였다.

중종반정(1506, 연산군 12) 이후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모든 의례는 오례의를 중심으로 준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고려투 인식하고 있던 주자가례에 의한 의례시행이 논의되었다. 『국조오례의』가 제후국의 위상을 갖춘 왕실의례라고 한다면, 사대부의 예는 주자가례의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조선시대 의례가 이원적 체제로 운영된 것은 당시 사회가 신분적 위계가 뚜렷한 유교국가임이 전제된 것이었다. 『국조오례의』의 왕조례 운영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대부들은 의례논쟁을 일으키며 천하동례의 시행을 촉구하였다. 그 핵심에는 17세기 1·2차 예송으로 이어지는 복제문제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복제문제를 다시 서인(庶人)의 3년상 문제, 1567년(선조 즉위) 명종 상에서의 흑립·백립 문제, 1575년(선조 8) 인순왕후(명종비 심씨) 상과 1577년(선조 10) 인성왕후(인종비 박씨) 상에서의 오사모·흑각대와 백의관대의 착용문제⁴⁾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1517년(중종 12) 국왕의 친영례가 처음 시행되고, 1602년 인목왕후를 맞이할 때 친영과 묘현 논의가 이루어져 주자가례가 왕실례에 적용된 것 또한 의례논쟁의 쟁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천릉문제도 논쟁거리이다. 16세기 천릉에는 1513년(중종 8) 소릉(昭陵, 문종비 현덕왕후릉) 천릉, 1537년(중종 32) 희릉(禧陵, 중종 1계비 장경왕후릉) 천릉, 1562년(명종 17) 정릉(靖陵, 중종릉) 천릉이 있다.

여기서는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을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쟁점 위주로 검토해보려 한다. 오례의 시행에 대해 사람들은 첫째, 복제문제에서 서인(庶人)의 3년상 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계층에 전일한 예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 문제해결의 전거가 되는 『국조오례의』에는 대부사서인례가 편제되어 있긴 했으나, 당시 서인(庶人)의 상제는 『경국

3) 정만조,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1)」, 『조선시대사학보』 17(2001), 89-90쪽.

4) 고영진, 앞의 책, 257-258쪽.

대전』의 예전, 오복제에 ‘군인과 서인복은 백일복’이라고 한 것으로써 백일상제를 규정하고 있었고, 군인은 원할 경우 3년상을 할 수 있게 하였다.⁵⁾ 이에 대하여 조광조 등의 사람은 주자가례의 시행을 요구하였고,⁶⁾ 정광필(鄭光弼, 1462-1538) 등 대신과 예조는 『오례의』를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부분적 시행을 주장하였다. 전면적 시행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3년상을 이유로 신역을 꺼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정의 차질문제⁷⁾와 ‘사대부와 서인의 예가 같지 않음⁸⁾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결국 중종 대에 오례를 기본으로 하되, 서인들은 원할 경우에만 3년상을 시행하게 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⁹⁾ 이 논의는 백관상복의 형태규정, 단상제의 폐지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영조 대의 『속오례의』에서 백관복제가 부자와 군신의 의리가 같아지는 형태로 규정되고,¹⁰⁾ 1752년(영조 28) 『국조상례보편』에서 복제규정이 3년상제의 형태로 되면서¹¹⁾ 단상제의 폐지는 곧 실질적인 3년상제의 조문화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흑립·백립 문제 역시 국상의 3년상제 확립과 궤를 같이하는 변화이면서 주자성리학의 이해과정과 맞물려 해석된다. 주자성리학에서 조선성리학으로의 정착과 함께 상제에서도 흑립이 백립으로 바뀌게 된다는 논리이다.¹²⁾ 흑립·백립 논의는 단순한 상복문제(笠, 갓)가 아니었다. 16세기의 사람들은 3년상제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 졸곡 후 평상복에 흑립을 반대하고 백립제를 주장하였다.¹³⁾ 『국조오례의』에도 본래 졸곡 뒤에 평복에는 백립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선조 대의 명종상제에 와서야 졸곡 후의 평복이 백립으로 복귀하였다.¹⁴⁾ 그리고 관리들이

-
- 5) 『경국대전』 권3, 禮典 五服制. “本宗 父 斬衰三年 軍士及庶人服百日 母同[軍人願行三年者聽].”
- 6) 고영진, 「15·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 『한국사론』 21(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 136쪽.
- 7) 『중종실록』, 중종 7년(1512) 3월 1일(병오).
- 8) 『중종실록』, 중종 13(1518) 1월 14일(갑인).
- 9) 『중종실록』, 중종 10(1515) 9월 7일(경인).
- 10) 『속오례의서례』 흥례, 상복도설, 최복: “百官具衰服經帶杖屨 一如王世子衰服之制.”
- 11) 1752년(영조 28)에 장자를 위한 삼년상제를 회복하면서 세손에 대해서 기년복으로 정하고 『상례보편』에 수록하게 하였다. 『영조실록』, 영조 28년(1752) 7월 24일(임오).
- 12) 지두환, 「朝鮮前期 黑笠·白笠 論議: 國喪의 3년상제 확립과정중 중심으로」, 『부산사학』 16(부산경남사학회, 1989); 고영진, 앞의 책, 116-119쪽.
- 13) 위의 논문, 57쪽.
- 14) 『석담일기』 상(『대동야승』 권14)에 근거한 고영진, 앞의 책, 116쪽.

집무할 때의 차림(視事服)[민순¹⁵⁾·이이·박순¹⁶⁾·노수신의 주장에 따른 백의·백관(백모·백대)에 대립하여 권철(權轍)·홍섭(洪漚) 등은 『국조오례의』대로 현관·소의·오대를 주장이 백모·백대로 확립되는 것¹⁷⁾은 사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는 군신관계가 곧 부자관계라는 공식으로 이어진다.¹⁸⁾ 서경덕으로부터 시작되어 김집으로 이어지는 복제의 개정논의¹⁹⁾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면, 민순과 박순이 화담학파를 잇는 인물²⁰⁾로서 백의·백관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²¹⁾ 이 논의는 결국 숙종 대에 군신 간의 복제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참최복과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다.

1575년(선조 8) 인순왕후, 1577년(선조 10) 인성왕후, 1600년(선조 33) 의인왕후 상에서의 오사모·흑각대와 백의관대의 착용문제 또한 흑립·백립 논의와 별개의 일이 아니었으며 3년상제와 마찬가지로 의의를 가지는 복제문제였다. 그렇다면 흑립·백립, 오사모·흑각대와 백의관대 등 상복의 흑백 논의가 3년상제의 확립과 무슨 상관이며, 조선 초의 태조국상에서부터 연산군 대에 이르기까지 행해졌던 역월단상제의 시행이 왜 의리명분을 거스르는 국상인지 알아봐야겠다. 중종 대 사람들에게 의해 줄곡 후에 백의·백모·백대를 갖추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자가에 입각한 3년상제의 올바른 시행으로 이어지는 살펴보자.

다음 언급은 비록 태종의 국상에서 이뤄진 조선 초기의 상제이지만, 세종이 역월 제도가 선왕의 법이 아니므로 25일 만에 복을 벗지 않고 3년복을 입겠다고 함으로써 단상제가 그릇된 제도임을 말해준다. 이와 동시에 줄곡 후의 시사복 문제가 제기되면서 군신 간의 복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로써 숙종 대의 군신복제 논의는 태종 국상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閔純(1519-1591): 서울·경기 서경덕계. 정만조, 앞의 논문(2001), 96-97쪽, 108쪽.

16) 朴淳(1523-1589): 호남 서경덕계. 위의 논문, 96-97쪽.

17) 『선조수정실록』, 선조 8년(1575) 5월 1일(무술).

18) 지두환, 앞의 논문, 55쪽.

19) 『花潭先生文集』 권2, 「擬上仁宗大王論國朝大喪喪制不古之失疏」; 『常變通攷』 권28, 「國恤禮」, 臣民儀.

20) 정만조, 앞의 논문(2001), 96-97쪽.

21) 서경덕을 이어 민순과 박순이 화담학파로서 서인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백의·백관을 주장하는 점을 다음 연구(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8, 34쪽)와 연결시켜 III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예조에서 〈달수로 달수를 바꾸는〉 역월(易月) 제도를 사용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월 제도는 한나라·당나라 이하의 보통 임금이 하던 일이요, 선왕의 법은 아니다. 대비(大妃)의 초상에 예관이 부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역월 제도를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내가 부왕께 두 번이나 청하여 산릉을 모신 뒤에 효복(孝服)을 벗었다. 이제 25일 만에 벗게 되면, 도리어 전번 초상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최복(衰服)으로 3년을 지내려고 한다. 그러나 최복으로는 정사를 볼 수 없으므로, 졸곡 뒤에는 권도로 상복을 벗고 흰옷과 검은 사모·검은 각대로 정사를 볼 것이며, 상사에 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상복을 입고, 소상·대상·담제의 법도 일체 고례에 따를 것이다. 백관은 역월 제도에 의하여 복을 벗는 것도 가하다” 하였다.²²⁾

『국조오례의』에 의한 상장 절차는 크게 ① 초종단계, ② 빈전의식, ③ 발인단계, ④ 혼전제사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발인단계의 마지막 절차인 반우(返虞)는 산릉에서 혼령이 깃든 우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오는 의식이다. 이렇게 궁궐 혼전에 모셔진 우주는 위의 네 번째 단계인 혼전제사에서 우제-졸곡-연제(이때 우주는 연주로 바뀜, 초상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날)-상제(25개월이 되는 날)-담제(상제를 지낸 뒤 1개월을 사이에 됨)를 거친 후에 종묘에 부모된다. 이러한 상례 전 과정이 주자가례에 의하면 27개월에 걸쳐 행해져야 하지만 조선 초기부터 달수로 달수를 바꾸는 역월 제도에 의해 27일 만에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한(韓)·당(唐)나라 이하의 보통 임금이 하던 일로서 선왕의 법은 아닌데도 고려시대 백일상제의 유제 때문에 또는 종법을 거스르고 왕위에 오른 태종, 세조, 그리고 패역을 일삼았던 연산군에 의해 단상제가 시행되어왔다.

혼전제사 가운데 졸곡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으로 이로부터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조석에만 곡을 하다가 연제 후에 곡을 그친다.²³⁾ 이 졸곡은 흥례인 상제에서 길제(吉祭)로 전환되는 시점이다.²⁴⁾ 이때부터 임금과 관료들은 정사를 보게 되므로, 정사를 볼 때 입는 시사복과 평복이 문제가 되었다. 입(笠)은 평복에 쓰는 것이고, 사모와 각대는 정사를 볼 때 착용하는 옷차림이다. 상복에서의 흑립·백립, 오사모·흑각대, 백의관대 논의는 졸곡 뒤 평복과 시사복(예복, 공복) 때문에 나온

22) 『세종실록』, 세종 4년(1442) 5월 13일(기사).

23)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국가전례」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4) 『예기』 「상대기」에 근거한 임민혁, 「조선초기 國朝五禮儀 흥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50(2013), 26쪽.

문제이다. 세종은 권도로서 졸곡 뒤부터는 흰옷과 검은 사모·검은 각대를 하고 정사를 볼 것이며, 단상제가 아닌 3년상을 지낼 것이므로 상을 마칠 때까지는 최복을 벗지 않겠다고 하였다. 단상제에 따르면 졸곡 뒤의 평복은 흑립을 쓰지만, 16세기가 되면 3년상제의 확립과 함께 백립제로 정해진다. 이것이 흑립·백립 논의이며, 시사복은 오사모·흑각대에서 백모·백대로 바뀌게 된다.

의정부·육조에서 계하기를, “태조의 초상에 대행 대상왕이 역월 제도에 의하여 복을 벗었으나, 궁중에서는 실로 3년의 상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감히 이것을 계한 것인데, 이제 상지(上旨)를 듣고 보니 감히 다시 계하지 않겠나이다. 다만 신하와 자식은 같은 것인데, 전하만 최질(衰絰)을 하고 신하들이 복을 벗는다는 것은 의에 어그러지는 것이니, 여러 신하들도 졸곡 뒤에 복을 벗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허락하였다.²⁵⁾

이때 신하와 자식은 같은데 어찌 신하들만 역월제에 의해 (12개월째에 행해지는 졸곡제를 일로 계산하여 12일 만에) 복을 벗겠냐며, 신하들도 졸곡 뒤(12개월)에 상복을 벗게 해야 한다는 군신 간 복제 논의가 1442년(세종 4) 5월 13일에 처음 제기되었다. 역월제는 중종 대 폐지되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숙종 44년에 비로소 폐지되었고, 숙종 46년의 숙종 국장에서 이를 시행하여 천고의 누를 씻었으며, 영조의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 국상에서 남김없이 씻었다.²⁶⁾ 이 군신 간 복제는 조선 후기의 『속오례의』 편찬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친영례 또한 『국조오례의』 의례 시행에서 주자가례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이다.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왕세자는 친영례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왕은 ‘명사봉영(命使奉迎)’이라 하여 신하가 왕비를 맞이해오고 있었다. 정광필 등의 의논은 친영의 예를 거행하면 성현에 어그러진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결국은 국왕의 친영례가 시행되기에 이른다. 1517년(중종 12) 3월 19일, 문정왕후를 맞이할 때 친영의 예를 『오례의주』에 첨가해서 후세에 준행토록 전교하였다.

25) 『세종실록』, 세종 4년(1442) 5월 13일(기사).

26) 『영조실록』, 영조 4년(1728) 12월 15일(기미).

전교하였다. “정광필 등의 의논이, 그 친영하는 예를 거행한다면 자못 성헌에 어그러진다고 했다. 대저 조종조의 예문을 거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나로부터 시행하지 않는다면 선왕의 성헌을 무너뜨린다 할 수 있지만, 본래부터 거행하지 않은 정당한 예문을 나로부터 거행함이 어찌 무너뜨리는 것이겠는가. 이제부터는 항구한 법으로 정하여 오례의주(五禮儀註)에 첨가해서 실어, 후세에 준행토록 함이 가하다.”²⁷⁾

이렇게 왕명으로 친영 의주가 『국조오례의』에 기재되었으나 왕의 혼례인 「납비의」 항목이 아니라 왕자의 혼례인 「왕자혼례의」 항목에 들어가게 되므로 왕에 대한 친영의 규정이 실제로는 없었다.²⁸⁾ 이 때문에 의인왕후 상을 마치고 1602년(선조 35) 6월 9일, 선조가 계비(김제남의 딸, 인목왕후)를 맞이하는 대례의 절차를 의논할 때,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례(大禮)의 기일이 멀지 않으니 거행해야 할 모든 의주(儀註)를 미리 마련한 뒤에야야 군색하고 촉박하게 되는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례의』에 구비되어 있는 것인 경우는 실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겠지만 친영(親迎) 등의 행사와 같이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은 관계되는 일이 크고 또 의거할 만한 전례도 없으므로 감히 억측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의논해야 할 조목을 조목조목 뽑아내어 뒤에 기록하였습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율허하였다.²⁹⁾

중종 대와 선조 대의 시행을 거친 이 친영의례는 영조 대에 가서야 『속오례의』에 「납비친영의(納妃親迎儀)」라는 정식 의례로 실리게 된다.

셋째, 천릉문제이다. 중종 대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인 기묘사화를 『국조오례의』를 고수하려는 세력과 고례를 추구하였던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사류 사이의 대결로 보기도 하므로 국조오례과와 고례과의 대립구도³⁰⁾ 안에서 정광필-조광조, 정광필-김안로의 관계를 눈여겨보려 한다. 조광조(1482-1519, 사림파)³¹⁾와 김안로(1481-1537, 권신세력)³²⁾가 정광

27) 『중종실록』, 중종 12년(1517) 3월 19일(갑오).

28) 고영진, 앞의 책, 194쪽.

29)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6월 9일(기해).

30) 고영진, 앞의 책, 257-258쪽.

31) 사림파 학맥: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조광조. 정만조, 앞의 논문(2001), 90쪽.

32) 위의 논문, 92쪽.

필(1462-1538, 훈구파)과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공통점을 빌미로 예학적 갈등을 파악해보려는 것이다. 김안로의 등장은 희릉 천릉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로 꼽아본 몇 가지 쟁점 가운데, 16세기 천릉문제만큼은 의례의 조문적 충돌이 아닌, 학문적·철학적 입장이 다른 훈구파와 사림파, 또는 훈구파와 척신파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 16세기에 이루어진 천릉에는 소릉(昭陵)과 희릉(禧陵), 정릉(靖陵)이 있는데, 소릉과 희릉의 천릉이 그러한 경우이고, 희릉과 정릉의 천릉은 왕권 확립으로 설명되는 천릉이다.

소릉 천릉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를 세조가 왕위의 찬탈과 함께 종묘에서 폐출시켰던 것을 복위하면서 이루어진 천릉이다. 처음 능은 안산(安山)의 소릉(昭陵)이며 옮긴 능은 양주(楊州)의 현릉(顯陵)인데, 이 천릉은 사람들이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요구해온 일로서 주자성리학을 적용받아 시행되었다.³³⁾ 그리고 희릉 천릉은 권신 김안로가 훈구세력인 정광필을 제거하려는 술수에서 시작되었다.³⁴⁾ 이 천릉을 통해 중종이 정권을 장악한 김안로의 전횡을 처단하고, 정릉 천릉은 명종이 친정체제의 구축을 통해 왕권 확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므로, 희릉과 정릉의 천릉은 왕이 추구한 국가 중흥, 왕권확립의 관점³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희릉 천릉의 시행의의를 왕권 확립으로 해석한다면, 왕실례와 사대부례의 충돌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장에서 화두로 삼은 주제이므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광필 대조광조의 충돌을 오례의를 고수하는 쪽과 오례의에 주자가례를 적용하려는 세력 간의 충돌³⁶⁾로 본다면, 희릉 천릉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이와

33) 이현진, 「조선 전기 昭陵復位論의 추이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23(2002), 70쪽.

34)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4월 25일(계유).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가 정광필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날마다 허향을 영의정 한효원의 집에 보내어 의논하였으나, 한효원이 듣지 않으므로 죽이지 못했다. 그 뒤로도 계획은 날로 심해졌으나 오랫동안 허물을 잡지 못했다. 이때에 이르러 정광필이 일찍이 충효사였으므로 이 사건을 중시하여 그의 죄로 만들기 위해 마땅히 옮겨야 한다고 주창하여 의논하였는데,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지 못했다.

35) 신재훈, 「조선 전기 遷陵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58(2011), 59쪽.

36) 정광필과 조광조의 대립을 국조오례파(한당례)와 고례파의 대립으로 본 다음 연구성과에 착안하였다(고영진, 앞의 책, 258쪽). 조선 중기 의례를 가례 중심의 '보편주의'와 왕조례 중심의 '분별주의' 예학으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이영춘, 「제1차 예송과 윤선도의 예론」, 『청계사학』 6, 청계사학회, 1989; 이영춘, 「복제예송과 정국변동: 제2차 예송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22, 국사관찬위원회, 1991).

같은 구조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희릉 천릉은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들이 숙청된 기묘사화(1519, 중종 14)가 일어나고 한참 뒤(1537, 중종 32)에 이루어져 조광조와 같은 뜻을 지닌 사림과 훈구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훈척신간의 다툼에서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국왕 중종이 권신 김안로를 축출하게 된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천릉이라는 의례를 빌미로 왕권과 신권의 다툼 또는 왕실과 사대부의 충돌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왕실례와 사대부례의 대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논의를 더 진행한 뒤에 답을 구하려고 한다.

영조 대인 18세기에 이루어진 천릉인 장릉(長陵)의 경우는 희릉과 같이 충호사를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옮겨졌지만 그 시행의의는 다르다. 장릉의 경우는 뒷날 역적으로 평가되는 김자점이 충호사였다는 이유 때문에 군신 간 합의로 천릉을 시행하였다.³⁷⁾ 즉, 장릉의 천릉은 역적처단이라는 의리명분을 바로 세운 일이다.

또한 18세기의 온릉 복위는 16세기의 김정과 박상의 요구에서 비롯되어³⁸⁾ 조광조가 그들과 뜻을 함께하여 추진하려 했던 단경왕후 복위와 동일한 사건이며, 소릉 복위와도 이어져 있다. 1513년 소릉 천릉³⁹⁾이 중종의 정계제편과 신진 사림⁴⁰⁾의 지속적 청원이 결실을 맺은 사건이자, 1519년(중종 14) 7월 21일, 조광조의 단경왕후(온릉) 복위⁴¹⁾ 요구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⁴²⁾은 국조오례파와의 대결에서 고례파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장릉, 소릉, 온릉의 천릉을 의리명분⁴³⁾이 바로 세워진 일, 주자성리학에

37) 『영조실록』, 영조 7년(1731) 3월 16일(기묘). 좌의정 李瑬, 故 判書 尹穉, 그의 아들 故 相臣 尹趾善, 그의 사위인 判府事 閔籤遠, 예조판서 申思喆, 우의정 趙文命 · 좌참찬 徐命均 · 호조판서 金東弼 · 병조판서 金在魯 · 이조판서 宋寅明이 제안하였다.

38)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8월 8일(임술).

39) 『중종실록』, 중종 8년(1513) 3월 12일(신사). 政府에 (소릉)폐위 추복에 대해 전고하였다.

40)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성종실록』, 성종 9년(1478) 4월 15일(병오))과 김일손(『연산군일기』 권55, 연산군 10년(1504) 9월 30일(정사))이 소릉 복위를 주장하였다.

41) 『중종실록』, 중종 14(1519) 7월 21일(임자). 경연관의 자질문제와 원자 보양관 및 노산군에게 제사하고 소릉을 복위한 일에 대한 논의: “신씨를 도로 세우는 일을 박상 · 김정 등이 상소까지 하여 비록 광패한 듯하였지만 역시 정당한 논의였습니다.”

42) 1513년 4월 21일 소릉의 천릉이 완결되었다. 이 사건은 중종의 정계제편과 신진사림의 지속적 청원이 결실을 맺은 사건이자 훗날 조광조의 단경왕후 복위문제의 발단이 된 사건이다. 신재훈, 앞의 논문, 53쪽.

43) 이현진, 앞의 논문(2002), 72쪽.

입각한 종묘정통론⁴⁴⁾으로 본다면 사림들은 희릉 천릉을 통해서 어떠한 주자가례적 시행을 의도했을까? 이 천릉문제에서는 왕조레와 사대부레의 조문적인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광중에 들어 있는데도 그대로 능이 조성되었던 것을 문제 삼아 이루어진 천릉이지만 이는 처음 능을 조성할 당시(중종 10)의 충호사였던 정광필을 대상으로 김안로가 벌인 일이었다.⁴⁵⁾ 이 대립을 훈구세력에 대한 사림파의 도전, 주자성리학을 이념으로 하는 사림들의 사상적·철학적 표출의 상징적 정치행위로 볼 수 있을까? 주자성리학의 이해 정도가 깊어감에 따라 예학의 탐구에 몰두했던 사림들이 자신들과 이해를 달리하는 정적 제거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까?

지금 학계에서는 김안로를 훈구파로 보기도 하고 사림파로 보기도 한다.⁴⁶⁾ 하지만 그가 정광필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다고 해서 훈구파에 맞서는 사림파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김안로의 시대를 중종 26년에서 32년으로 잡고 있는데,⁴⁷⁾ 이때 김안로가 삼사(三司)를 장악하여 정권을 운영하였다는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전에도 조광조 등 고려파가 삼사를 통해 활동하였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정광필 등 국조오려파는 예조를 통해 활동⁴⁸⁾하였다.

김안로의 아들인 연성위 김희(金禧)와 며느리인 효혜(孝惠)공주가 1531년(중종 26)에 죽었다.⁴⁹⁾ 효혜공주는 인종(1515-1545)의 유일한 친누이였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같은 해에 죽자 김안로는 그해부터 삼사를 장악(중종 26-32)하여 정권을 전횡하다가 희릉 천릉을 통해 오히려 중종에게 처단되었다. 예조와 삼사라는 각각의 기관을 매개로 국조오려파와 고려파의 대립, 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그리고 정광필과 조광조·김안로의 대립구도를 설정해보긴 하였지만, 훈구파와 사림파의 소속 기관은 이들의 대립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부족하고 김안로의 예학적 인식은 사료에 거론된 바가 없어 조광조와의 학문적인 유대관계를 연결해서

44) 위의 논문, 70쪽.

45)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4월 25일(계유).

46) 김범, 『사회와 반정의 시대』(역사비평사, 2015), 222쪽.

47) 위의 책, 222쪽.

48) 고영진, 앞의 책, 63쪽.

49) 1531년(중종 26) 4월 20일, 효혜공주가 졸하였고 『중종실록』, 중종 26년(1531) 4월 20일(갑술), 10월 10일 연성위 김희가 졸함 『중종실록』, 중종 26년(1531) 10월 10일(경인).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권력을 장악하려 한 신하들 간 또는 군신 간의 권력다툼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희릉 천릉을 사림과의 주자가례 실천 또는 왕조례와 사대부례의 다툼으로 연결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희릉 천릉만큼은 의례와는 별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본 16세기의 훈척신과 사림과 간의 대립구도를 17세기 효종릉인 영릉(寧陵) 천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릉(新陵)에 표석(表石) 세우는 일을 두고 송시열의 의견에 반하는 김우명이 현종에게 아뢰는 내용이다.

영돈녕부사 김우명(金佑明)이 이어 품은 생각을 진달하기를, “…… 신릉에 일단 표석을 설치하게 되면 각 능에도 모두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돌들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를 벌이노라면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강도(江都)는 바로 보장(保障)이 되는 지역이니만큼 민폐를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또 아뢰기를, “국가의 능침(陵寢)에 표석이 없다 한들 어떤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알 수 없게 된 후가 되어서는 표석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송시열이 강정(講定)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 타당성을 의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帝王)의 덕업(德業)이 후세에까지 빛을 드리우게 되는 것은 표석이 있든 없든 본래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명(明)나라 홍무(洪武) 초에 역대 제왕들의 35개 능을 거슬러 제사 올렸는데, 위로는 복희씨(伏羲氏)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복희씨 때로부터 홍무 때까지는 연대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묘를 알아내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곳에 비표(碑表)가 세워져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까” 하였다.⁵⁰⁾

새 능에 표석을 설치하면 다른 능에도 모두 설치해야 하며, 그 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국가의 보루가 되는 강화도의 백성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하지만 김우명이 입비(立碑)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산림(山林)의 중망(重望)을 지닌 대신이 강정(講定)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타당성을 의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명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표석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림의 대신인 송시열을 배척하는데 있었다.

16세기 희릉 천릉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훈척신과 사림과의 갈등구조를

50) 『현종개수실록』, 현종 14년(1673) 9월 9일(을해).

17세기의 영릉 천릉까지 확장하여 언급해보았지만 당대 정치사 문제, 인물 간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의례를 명목으로 한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는 정도만 언급해두고자 한다. 의례를 명목으로 하였지만 다른 천릉과 마찬가지로 조문의 문제는 아니며, 『국조오례의』와 주자가례의 적용에 관한 각 당파 간의 입장 차이를 염두에 둔 검토였다.

중종 대의 소릉 천릉은 영조 대의 은릉 복위로 이어지고 있다. 소릉·은릉·장릉이 주자성리학에 입각하여 의리명분이 바로 세워진 일이었다면 회릉·정릉은 왕권회복이라는 의의를 지닌다는 점으로 천릉문제를 요약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영릉(寧陵) 천릉은 17세기의 정치적 분화를 예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재이므로 16세기 천릉문제와 함께 언급해보았다.

중종 대 3년상제와 친영 논의는 국가의 전 범위, 전 계층을 대상으로 오례를 적용하겠다는 사립의 의지가 반영된 논의였으며 여기에는 주자성리학에 입각하여 『국조오례의』를 성실히 실행한다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자성리학의 적극적 실천이 시도된 16세기 천릉도 확인해보았다.

Ⅲ. 『국조오례의』 개정 논란

17세기는 16세기의 철학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본격적으로 예제 연구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인조 대에 정권을 잡은 서인과 남인의 양대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서를 편찬하였다.⁵¹⁾ 당시의 예학자들은 대부분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재해석하거나 시의에 맞는 변례로써 예서를 편찬하여 조선예학 발전을 이끌었지만 서인과 남인의 예학적 이해는 달랐다.⁵²⁾ 남인학계의 대표적인 예학자는 정구(鄭逵, 1543-1620)⁵³⁾이고,

51) 정옥자,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 『한국문화』 10(1989), 215쪽.

52) 위의 논문, 216쪽.

53) 남인과 서인의 예학적 인식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 논문에서 남인과 서인의 대표예학자의 의례서를 비교해놓았다(위의 논문, 216쪽). 다만, 이때의 예설은 家禮 위주의 의례서이다.

서인학계는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다.⁵⁴⁾ 예송논쟁의 시초가 되는 17세기 전반의 계운궁 복제문제가 바로 이들의 대립으로 설명되는 대표적 사례이다.⁵⁵⁾ 이때 서인학계의 대표적 예학자인 김장생의 예학은 그의 아들, 김집(金集, 1574-1656)에게로 연결되었으나, 김집이 『고금상례이동의』에서 제기한 『국조오례의』의 개정은 영조 대 『속오례의』가 편찬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⁶⁾ 오례의와 주자가례의 시행에 대한 논의는 17세기에 고례 이해의 심화와 함께 왕조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왕자례불동사서(王者禮不同土庶)와 사대부례의 일반화를 주장하는 천하동례(天下同禮)라는 입장 차이⁵⁷⁾를 보이며, 효종과 현종 대의 1·2차 예송논쟁으로 이어진다.

17세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을 겪은 후, 국가의 재건을 위해 힘쓰던 때였다. 임진왜란에서 입은 은의로 명에 대한 의리가 크게 부각되었고, 병자호란으로 중원에 2개의 황제국이 출현하자 황제례에 대한 관념은 분열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예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전까지는 국가 예전인 『국조오례의』를 기본으로 의례를 시행하였으나 양난 이후, 세부적인 수정을 가하여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때 야기되었던 인조의 사친인 계운궁의 상례 때(1626, 인조 4)의 복제문제,⁵⁸⁾ 생부 정원대군의 추송(원종추송, 1632)문제 등은 모두 영조 대 의례화 작업과 연관성을 지닌다. 이뿐만 아니라 조광조를 비롯하여 송시열과 같은 서인들이 주장했던 의리와 명분에 어긋나는 일들 역시 영조가 『속오례의』에 반영한다. 의리와 명분에 어긋난 일들이란 사람-서인-노론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주자가례에 어긋난 사건들로서, 이를 바로잡는 의식이 『속오례의』의 장릉복위의(단종 복위), 온릉 복위의(중종 비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 친릉의(역적 김자점과 관련된 일 처리) 등이다.

54) 위의 논문, 215쪽.

55) 이영춘, 「잡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송」, 『청계사학』 7(1990); 이현진, 「17세기 전반 계운궁 복제문: 김장생, 박지계의 예론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49(2003).

56)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124-138쪽, II장 2절의 “효종 대 오례의 개혁안 『고금상례이동의』” 참조.

57) 이성무, 「17세기의 예론과 당쟁」,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58) 인조는 사친인 계운궁의 상례에서 천하부동례를 주장하였다. 사친에 대한 애착의 마음이 앞서 국가례를 무시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인조는 결국 자취장기라는 형태로 타협하였다. 안희재, 앞의 논문, 150쪽.

조선은 양난의 전화를 극복하고 법제와 예제를 새롭게 재편하는 문화의 중흥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조선은 명이 멸망하고서 명나라의 유일한 계승국임을 자처하며 청나라와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숙종은 태도를 달리하여, 대명의리를 강조하며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는 국왕 주도적 의지⁵⁹⁾를 내세운다. 숙종 이후 강화된 왕권과 소중화 의식은 국가제도 정비사업으로 나타나 법전과 예전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다.⁶⁰⁾ 이때의 법제 제정(『전록통고』)은 영조 대의 『속대전』에 영향을 끼치고, 예제 제정(의궤 또는 등록)은 영조 대의 예전인 『속오례의』와 『속오례의보』, 『상례보편』의 편찬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17세기 문학을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⁶¹⁾로 구분한 연구에 주목해볼까 한다. 문학과 예학이 동일한 학문은 아니지만 동시대의 학문이라는 관점만으로도 동일 범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보려 한다. 그리고 논증이 진행되면서, 근거로 삼은 연구물의 타당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것이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진한고문파에는 정두경을 필두로 이규보·조경·남구만·최석정·홍만중·허견·홍주세·신면이 있고, 당송고문파에는 송시열과 김창협을 필두로 이색·이행·박은·박상이 있다.⁶²⁾ 17세기 초반 침류대시사(枕流臺詩社) 활동⁶³⁾을 통한 인적 구성이지만, 이 구성을 예학에 적용시켜보면 16세기의 예학적 대립을 ‘국조오례파’와 ‘고례파’의 대립으로 바라본 연구⁶⁴⁾가 떠오른다. 17세기 문학을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로 나누었다면, 이러한 구분이 한당례에 근거한 국조오례파와 고례에 근거한 주자가

59) 1704년(숙종 30) 대보단을 설치하여 대명의리를 강조한 것(정옥자, 「大報壇 創設에 관한 연구」, 『사학논총』, 1985; 한명기, 「再造之恩과 조선 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192쪽)과 숙종의 재위 30년을 기념하는 청경논의(이상식, 조선 肅宗代 君師父一體論의 전개와 왕권강화), 『한국사학보』 20, 2006, 167-173쪽)를 들 수 있다.

60) 안희재, 앞의 논문, 153쪽.

61) 오세현, 『조선중기 ‘斯文’과 文章 四大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191-192쪽.

62) 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2008), 222-223쪽.

63) 고영진,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서울 枕流臺學士의 활동과 그 의의」, 『서울학연구』 3(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64) 국조오례의파와 고례파의 대립에 대해서는 이범직, 「조선전기의 오례와 가례」, 『한국사연구』 71(1990); 고영진, 앞의 책, 45-64쪽, 259쪽; 이영춘, 「영조대 법전과 예제의 제정비」,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283-284쪽을 참조하였다.

례과의 인적 구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다음의 인물정보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진한고문과의 대표로는 정두경이 거론되고, 진한고문과의 일원인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예기유편(禮記類編)』으로써 17세기 의례논쟁⁶⁵⁾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그리고 당송고문과의 송시열은 1·2차 예송논쟁을 이끈 중심인물이며, 역시 같은 파인 박상은 김정과 함께 온릉복위를 주장하여 노론의 의리명분을 이어가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여기에 남인의 대표적인 예학자로는 정구, 서인으로는 김장생이 손꼽힌다는 점을 고려하여 17세기의 침류대시사 활동을 통한 진한고문과와 당송고문과의 인적 구분을 예학에도 적용해보면, 진한고문과는 남인 또는 서인의 소론으로 연결되고, 당송고문과는 서인 또는 서인의 노론으로 연결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앞 장에서 거론한 16세기 흑립과 백립 논의를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경덕을 이어 민순과 박순이 화담학파로서 서인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백의·백관을 주장하였던 사실이 다음 의견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낙론계 학풍 연구’에서 “화담학파의 학풍을 공유하였던 서울·경기 지역의 서인과 남인들 사이에 일정한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⁶⁶⁾고 하였으므로 화담학파와 서인이 예학적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학풍을 공유하면서 가졌던 학문적 공감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써 화담학파와 서인 간의 공감대 형성은 백의·백관 주장에서 확인하였지만, 화담학파와 남인 간 특히 남인의 대표 예학자인 정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정치적으로 서인, 학문적으로 기호학파인 이정구⁶⁷⁾의 교유망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한다. 이정구와 화담학파의 관계는 주로 서경덕의 고제였던 민순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65) 1710년(숙종 36) 소론인 최석정의 『예기유편』을 둘러싼 노론·소론 대립뿐 아니라, 회신시비에서 병신처분에 이르는 18년간 [1699년(숙종 25)에서 1716년(숙종 42)]의 사건은 『속오례의』 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6) 조성산, 앞의 책, 34쪽.

67) 김학수, 「月沙 李廷龜(1564-1635)의 학문적 계통과 사림에서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16(한국인물사연구회, 2011), 96쪽; 한강 정구와 월사 이정구(1564-1635)의 관계는 김학수, 같은 논문, 102쪽과 다음 논문을 참조. 김학수, 「寒岡 鄭述 神道碑銘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42(2007).

다.⁶⁸⁾ 또한 진한고문과의 대표격인 정두경은 이항복의 문인이면서 이정구의 문인이기도 하다.⁶⁹⁾ 이정구의 교유망이 남인 영남학파로까지 확대되어 정구의 문인이 이정구에게 글을 청탁하는 일까지 있었다.⁷⁰⁾ 즉, 이정구가 맺고 있는 인연이 화담학파의 고제인 민순의 문인들, 남인의 대표 예학자인 정구, 진한고문과의 대표 격인 정두경에까지 미치므로 진한고문학과와 남인 사이의 유대관계는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적 구성을 추적하는 이유는 문학에서 분류한 진한고문과와 당송고문과가 예학에서도 진한례와 당송례의 구분으로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조오례의』가 진한례, 주자가례가 당송례라는 구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예학적 연구를 통해 논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만큼은 명백해졌다. 서경덕의 「의상인종대왕론국조대상상제불고지실소(擬上仁宗大王論國朝大喪喪制不古之失疏)」에서 비롯된 복제 논의가 김장생의 아들인 김집의 『고금상례이동』로 이어졌고, 민순에 의해 화담학파의 맥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17세기 남인의 대표 예학자인 정구는 화담학파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정구와도 인연이 있었기에 이정구를 가교 역할로 하는 화담학파, 남인, 서인의 교류양상은 앞으로 전개될 예학자들의 정치적·학적 연원이다.

요컨대 17세기 초 침류대시사 활동을 통해 화담학파의 학풍을 공유하였던 남인과 서인들 간에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활동을 통한 진한고문과(정계두), 당송고문과(송시열·김창협)가 각각 남인(정구), 서인(김장생·김집)의 대표 예학자들과 연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진한고문과와 남인의 교류는 이정구라는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가 서인의 노론·소론 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인 내의 분열까지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이 논의를 더 진행해보자. 여기에는 『국조오례의』의 개정 논의가 개입되어 있어 조선 후기 의례서 편찬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해본다.

68) 신병주, 『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일지사, 2000), 238쪽.

69) 김학수, 앞의 논문(2011), 118쪽.

70) 위의 논문, 104쪽.

서인 내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한당(漢黨)·산당(山黨), 공의(公義)·사의(私義), 완론(緩論)·준론(峻論), 노론(老論)·소론(少論)의 대립을 들 수 있다.⁷¹⁾ 이는 남인과 서인 간의 다툼인 예송논쟁과는 무관한 시안처럼 보이지만 서인 안에서도 예학적 의견을 달리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서인 내의 분열 또한 예송논쟁과 함께 다뤄야 한다. 조선 후기 의례서 편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노론·소론 간의 대립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연원이 되는 서인 내의 대립을 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종 대의 정치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예송문제를 둘러싼 서인·남인 사이의 정치적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지만, 한편에서는 서인 내의 분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서인 내의 한당·산당의 대립은 1664년(현종 5)의 공의·사의론으로 이어져, 후일 숙종 때 명분 위주의 노론과 현실 중시의 소론이 분립하게 된 인적 요소와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⁷²⁾ 1663년(현종 4) 11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에 왕의 배종을 회피하는 김만균(金萬均)의 사직요청에서 비롯된 공의(서필원, 김시진)·사의(김만균, 민유중, 홍명하, 남구만, 송시열)는 한당·산당, 완론(이경휘·윤형성·유상운·박세당·조원기·박증휘·오시수·윤심·이단상이 구성원이고 이경석·정태화·허적이 동조함)⁷³⁾·준론(조해, 윤현, 홍처대, 원만석, 이규령, 맹조서, 조성보, 장선징, 남이성, 민정중, 송준길, 이우석, 김수항, 이민서)이라는 정치집단을 지칭하는 명목이 될 정도로 조정을 분쟁 속에 몰아넣었던 논란⁷⁴⁾으로서 이 글에서는 이를 서인 내부의 의례논란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려 한다. 서인과 남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같은 서인 내에서도 『오례의』 개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⁷⁵⁾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인과 서인 간의 예서에 대한 차이는 정구의 『가례집람보주』·『오선

71) 인조 말년경의 서인 내의 분파로 原黨(원두표)·洛黨(김자점)·산당·한당을 들고 있으며(정만조,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한국문화』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현종 5년에 일어난 서인 내부의 갈등인 공의·사의 논쟁을 통해 완론·준론이란 정치세력을 구분하는 명목이 생겨났다. 숙종 대에 분립하는 노론·소론의 선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정만조,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論爭」, 『한국학논총』 1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a, 88쪽; 정만조, 「17世紀 中葉 山林勢力(山黨)의 國政運營論」,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b).

72) 정만조, 앞의 논문(1992a), 65쪽.

73) 정만조, 앞의 논문(1992a), 83쪽.

74) 정만조, 앞의 논문(1992a), 88쪽.

75) 안희재, 앞의 논문, 132-135쪽.

생예설분류』와 김장생의 『의례문해』·『가례집람』의 대비로 설명된 바 있고⁷⁶⁾, 이경석과 김집의 의례논란이 흥례편의 항목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⁷⁷⁾ 그러므로 여기서는 김집의 개혁 논의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이경석이 『오례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논리를 펴고, 1649년(효종 즉위) 6월 24일, 영돈녕부사인 김상헌(金尙憲, 1570-1652, 80세)과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1602-1673)가 김집의 예제를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명백한 것만 따라 행할 것을 현의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왕조례의 전적인 변화요구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어 봉당 내의 전반적인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⁷⁸⁾ 필자는 오례의 개정에 대한 찬반을 통해 서인 내의 분열의 조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인 가운데에서도 준론 쪽의 덕망 있는 원로⁷⁹⁾로 여겨지는 김상헌이 오례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준론-완론의 오례의 개정에 찬-반의 대립적 입장을 대입하기에는 선부분 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료분석을 통해 설득력을 갖추하고자 한다.

김집의 오례의 개정 논의가 있었던 1649년(효종 즉위)은 공의·사의론이 일어나는 시점(1664, 현종 5)보다 15년이나 이른 시기이다. 하지만 공의·사의론보다 앞서는 한당과 산당의 구분은 인조 말년의 일이므로, 효종 즉위 직후의 다음과 같은 일들은 서인 내의 분열을 논하는 데 시기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효종은 인조 국상으로 분문차(奔問次) 상경한 김상헌을 계속 조정에 머물게 하였다. 이때 김상헌은 김집의 「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데, 오례의에 수정을 가한 김집의 예론에 대하여 “명백하여 따라야 할 것만 골라 행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 유신(儒臣)이 다 모여 깊이 강론하여 자세히 처리하기를 기다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여 오례의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하였다. 이어 우의정 정태화는 이경석이 김집의 오례의 개정을 10항목으로 요약하여 올린 책자에 대하여, “여섯 절목 정도는 크게 변경하는 것도 아니니 예관으로 하여금 이로써 품의하여 결정케 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76) 정옥자, 앞의 논문, 215쪽.

77) 안희재, 앞의 논문, 135쪽.

78) 위의 논문, 135쪽.

79)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1649) 5월 14일(임신).

하여 이경석 의견을 대부분 지지해주고 있다. 즉, 이경석은 김집의 오례의 수정에 대하여 효종의 명에 따라 하는 수 없이 논의하면서⁸⁰⁾ 김집의 의론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는데, 이에 정태화가 이경석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 것이다. 이경석은 처음부터 오례의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데다가, 두 사람은 완론과 준론으로 나뉠 때 완론 쪽에 서게 된다.⁸¹⁾ 이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서인 내의 분열을 논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분열의 조짐이 오례의 개정에 대한 것이기에 위에서 말한 김집의 개혁 논의는 의례 연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서인 내의 분과로서 한당(김육(金堉), 신면(申冕))·산당(김집, 송시열, 송준길)을 인조 말년부터 일컫고 있으며, 1664년(현종 5)의 공의·사의론을 통해 완론·준론이란 정치세력을 구분하는 명목이 생겨났다.⁸²⁾ 그리고 1673년(현종 14), 효종 친릉의 표석문제를 두고 송시열과 김우명이 벌이는 다툼⁸³⁾은 산당·한당에서 사류·척신의 대응관계⁸⁴⁾로 연결된다. 이 정치적 사건들은 다음 의례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개되고 있었다. 인조의 사친인 계운궁 상례 때의 복제문제(1626, 인조 4),⁸⁵⁾ 생부 정월대군의 추송(원종추송, 1632)문제에서 비롯된 1659년의 기해에 송과 1674년의 갑인예송은 17세기의 가장 큰 정치 사안이자 의례논쟁이었다. 두 차례의 예송논쟁은 남인과 서인의 철학적·예학적 대립구도로 설명되지만 그사이 서인 내에서도 분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 분열은 『국조오례의』의 개정 논의에 대한 찬반에서도 확인되며, 곧 남인과 서인 간의 예송논쟁으로 직결된다.⁸⁶⁾ 이미 1차 예송인 복제 논의에서

80)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1649) 5월 14일(임신).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좌의정 李景奭이 헌의하기를, “외람되이 의논해 처리하라는 명을 받고 감히 끝내 모른다고 사양만 할 수 없어 삼가 그 긴절한 조목에 오류가 많은 신의 설을 붙여 작은 책자로 만들어 올립니다.” 하였다.

81) 정만조, 앞의 논문(1992a), 83쪽.

82) 『현종실록』, 현종 5년(1664) 윤6월 12일(임신). 사관의 설명을 근거로 한 위의 논문, 77쪽.

83) 『현종개수실록』, 현종 14년(1673) 9월 9일(을해).

84) 정만조, 앞의 논문(1999), 127쪽.

85) 인조는 사친인 계운궁의 상례에서 천하부동례를 주장하였다. 사친에 대한 애척의 마음이 앞서 국가례를 무시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인조는 결국 자취장기라는 형태로 타협하였다. 안희재, 앞의 논문, 150쪽.

86) 서인 내에서 서필원을 필두로, 김시진, 박세당, 이경석, 정태화, 이경휘, 이경역, 조원기 등이 완론에 속하던 인물임. 그리고 현종 9년, 우의정에 임명된 송시열이 泰安設齋를

원두표와 김좌명이 허목의 3년설을 지지하여 서인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⁸⁷⁾이다.

1·2차 예송을 겪으며 왕조례는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왕조례의 훼손이란 『국조오례의』에 명시되지 않은 왕실의 복제가 사대부의 예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일컫는다. 예제의 조문적 한계로 인해 왕조례가 실추되는 상황을 경험한 영조는 왕권강화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그 방어적 형태의 의례서를 편찬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탄생한 것이 『속오례의』이다.

예송문제(남인과 서인의 대립)와 함께 진행되었던 서인 내의 분열은 노론·소론으로 나누어져 영조 대의 『속오례의』 편찬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정치적 분파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속오례의』 편찬과정에서 나타나는 왕의 왕조례 회복이나 정통성 확립에 대한 신하들 간의 반응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 17세기 초반 침류대시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의 인물들은 인조반정 이후 남인과 서인으로 각기 변모해갔다.⁸⁸⁾ 서인 내에서는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나누어져, 이들이 곧 18세기 영조 대의 국정운영과 예학사상을 담당하게 된다. 이 인물들과 관련된 정치·문학·예학적 검토는 조선 후기 의례서의 편찬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원이 될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먼저, 16-17세기의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논란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국가례인 오례와 사대부례인 주자가례의 충돌을 다음 세 가지 쟁점 위주로 검토하였다. 오례의 시행에 대해 사람들은 첫째, 복제문제에서 서인(庶人)의 3년상 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계층에 전일한 예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광조(趙光祖) 등의 사람은

추진하였을 때, 형조판서이던 서필원이 정면으로 반대하였고, 정태화, 김좌명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송시열이 결국 정계의 일선에 물러난 사건(『현종실록』, 현종 10년(1669) 2월 6일(기사))을 두고, 완론에 속하던 인물들이 산림계를 비판하며 그 정치활동을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정만조, 앞의 논문(1992a), 87쪽.

87) 『현종개수실록』, 현종 1년(1660) 4월 18일(임인)을 근거로 한 위의 논문, 87쪽.

88) 조성산, 앞의 책, 34쪽.

주자가례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였고, 정광필(鄭光弼) 등 대신과 예조는 『오례의』를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부분적 시행을 주장하였다. 결국 중종 대에 『오례의』를 기본으로 하되, 서인들은 원할 경우에만 3년상을 시행하게 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가 영조 대의 『속오례의』에서 백관복제가 부자와 군신의 의리가 같아지는 형태로 규정되고, 1752년(영조 28) 『국조상례보편』에서 복제규정이 3년상제의 형태로 되면서 곧 실질적인 3년상제의 조문화라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흑립·백립 문제 역시 국상의 3년상제 확립과 궤를 같이하는 변화이면서 주자성리학의 이해과정과 맞물려 해석된다. 16세기의 사람들은 3년상제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 졸곡 후 평상복에 흑립을 반대하고 백립제를 주장하였다. 『국조오례의』에도 본래 졸곡 뒤에 평복에는 백립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선조 대의 명종상제에 와서야 졸곡 후의 평복이 백립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관리들이 집무할 때의 차림이 백모·백대로 확립되는 것 역시 사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 논의는 숙종 대에 군신 간의 복제가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참최복과 동일하게 정해지면서 국가례의 복제에 주자가례의 적용이 이루어졌다.

둘째, 친영례 시행문제를 살펴보면 중종 때까지도 왕은 ‘명사봉영(命使奉迎)’이라 하여 신하가 왕비를 맞이해오고 있었다. 정광필 등은 친영의 예를 반대하였지만,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국왕의 친영례가 실현된 것은 1517년(중종 12) 문정왕후를 친영례로 맞이하였을 때이다. 중종 대와 선조 대의 시행을 거친 이 친영의례는 『속오례의』가 편찬될 때 비로소 「납비친영의(納妃親迎儀)」로 추가된다.

셋째, 천릉문제는 의례의 조문적 충돌이 아닌, 학문적·철학적 입장이 다른 훈구파와 사림파, 또는 훈구파와 척신파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보았다. 16세기에 이루어진 천릉에는 소릉(昭陵)과 희릉(禧陵), 정릉(靖陵)이 있는데, 소릉 천릉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를 세조가 왕위의 찬탈과 함께 종묘에서 폐출시켰던 것을 복위하면서 이루어진 천릉으로서, 사람들이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요구해온 일이 실현된 사례이다. 그리고 희릉 천릉은 권신 김안로가 훈구세력인 정광필을 제거하려는 술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정권을 장악한 척신 김안로의 전횡을 중종이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릉 천릉은 명종이 친정체제의 구축을 통해 왕권 확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

다. 그리고 훈척신과 사림과의 갈등구조를 17세기의 영릉(寧陵) 천릉까지 확장해보면, 의례를 명목으로 한 정치적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영릉을 천릉한 뒤, 척신인 김우명이 신릉(新陵)에 표석(表石) 세우는 일을 반대하는데, 입비(立碑)를 반대한 실제 이유는 사림의 대신인 송시열을 배척하는데 있었다. 천릉문제에서도 복제나 친영례의 경우와 같이 『국조오례의』 의례 시행과 국가례에 대한 주자가례의 적용을 두고 벌어진 각 당파간의 입장 차이를 검토해보았다.

그다음은 『국조오례의』의 개정 논란을 일으키는 의례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보았다. 16세기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논란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적 사건인 예송논쟁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예송논쟁이 남인과 서인의 예학적 대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의례 제정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더욱이 서인이 다시 노론·소론으로 분파되면서 이들은 18세기 의례제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파·정파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전개될 조선 후기 의례 제정자들의 정치적 연원을 고려한 것이다.

17세기 초반 침류대시사(枕流臺詩社) 활동을 하던 진한고문파의 대표는 정두경이고, 최석정은 그 일원이다. 그리고 당송고문파의 송시열은 1·2차 예송논쟁을 이끈 중심인물이며, 역시 그 일원인 박상은 김정과 함께 온릉 복위를 주장하여 노론의 의리명분을 이어가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여기에 남인의 대표적인 예학자는 정구, 서인으로는 김장생이 손꼽힌다는 점을 고려하여 17세기의 침류대시사 활동을 통한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의 인적 구분을 예학에도 적용해보면, 진한고문파는 남인 또는 서인의 소론으로 연결되고, 당송고문파는 서인 또는 서인의 노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경덕을 이어 민순과 박순이 화담학파로서 서인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백의·백관을 주장하였던 것은 화담학파의 학풍을 공유하면서 가졌던 학문적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으며, 화담학파와 남인 간, 특히 남인의 대표 예학자인 정구와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서인, 학문적으로 기호학파인 이정구의 교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침류대시사 활동을 통한 학문적 유대관계는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가 각각 남인과 서인의 분열로 이어지는 매개체였다.

남인과 서인의 대결 구도는 17세기 예송문제라는 큰 정치적 사건으로 이어지며, 노론과 소론은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 분열을 야기한 『국조오례의』의 개정 논의를 주목해보았다. 서인학계의 대표적 예학자인 김장생의 예학은 그의 아들 김집에게로 연결된다. 김집이 『고금상례이동의』에서 제기한 『국조오례의』의 개정 논의가 1649년(효종 즉위)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서인 분열의 시초로 일컬어지는 한당과 산당의 구분이 있었던 인조 말년과 시기가 일치한다. 이를 빌미로 서인 내의 분열 조짐을 확인해보았다. 김집의 『오례의』 개정 논의에서 이경석이 『오례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논리를 펴자, 영돈녕부사인 김상헌(金尙憲)과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김집의 예제를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명백한 것만 따라 행할 것을 현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서인 가운데에서도 준론 쪽의 덕망 있는 원로로 여겨지는 김상헌이 『오례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사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김상헌의 주장은 『오례의』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고, 정태화는 이경석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서인 내의 준론-완론의 구분이 있을 때, 이경석과 정태화는 완론 쪽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오례의』 개정에 대한 찬-반의 대립적 입장은 서인을 준론-완론으로 나눌 수 있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이 분열은 훗날 조선 후기 의례서 편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구도를 이해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을 통해 의례 제정자들의 정치·문학·예학적 연원을 살펴보았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승정원일기』, 『세종실록』, 『중종실록』, 『선조수정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영조실록』, 『화담선생문집』, 『상변통고』,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상례보편』, 『경국대전』.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 단행본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김범, 『사회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15.
신병주, 『남명학과와 화담학과 연구』. 일지사, 2000.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1996.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8.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 논문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2008.
고영진, 「15·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
_____,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서울 枕流臺學士의 활동과 그 의의」. 『서울학연구』 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김학수, 「寒岡 鄭述 神道碑銘의 改定論議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42, 조선시대사학회, 2007.
_____, 「月沙 李廷龜(1564-1635)의 학문적 계통과 사림에서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16, 한국인물사연구회, 2011.
김해영,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2010.
송지원, 「영조대 儀禮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한국문화』 5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신재훈, 「조선 전기 遷陵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오세현, 『조선중기 ‘斯文’과 文章 四大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범직, 「조선전기의 오례와 가례」. 『한국사연구』 71, 한국사연구회, 1990.
- 이상식, 「조선 肅宗代 君師父一體論의 전개와 왕권강화」.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6.
- 이성무, 「17세기의 예론과 당쟁」.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이영춘, 「제1차 예송과 윤선도의 예론」. 『청계사학』 6, 청계사학회, 1989.
- _____, 「잡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송」. 『청계사학』 7, 청계사학회, 1990.
- _____, 「복제예송과 정국변동: 제2차 예송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22, 국사편찬위원회, 1991.
- _____, 「朝鮮後期の 祀典의 再編과 國家祭祀」.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 _____, 「영조대 법전과 예제의 재정비」.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이현진, 「조선전기 昭陵復位論의 추이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 _____, 「17세기 전반 계운궁 복제론: 김장생, 박지계의 예론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4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3.
- _____, 「『國朝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의 편찬과 의의」.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3, 역사실학회, 2010.
- _____, 「조선초기 『國朝五禮儀』 흥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 『역사와 실학』 50, 역사실학회, 2013.
- 정만조,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한국학논총』 1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a.
- _____, 「17世紀 中葉 山林勢力(山黨)의 國政運營論」. 『한국사학논총』(擇窩許善道先生停年 紀念), 일조각, 1992b.
- _____,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한국문화』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 _____,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I)」. 『조선시대사학보』 17, 조선시대사학회, 2001.
- _____, 「조선의 예치와 『국조오례의』 편찬」. 『조선왕조의 五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아카데미, 2012.
- 정옥자, 「大報壇 創設에 관한 연구」. 『사학논총』(邊太燮博士華甲紀念), 1985.
- _____,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예론」. 『한국문화』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1989.

지두환, 「朝鮮前期 黑笠·白笠 論議: 國喪의 3년상제 확립과정을 중심으로」, 『부산사학』 16, 부산경남사학회, 1989.

탁신희, 「『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왕권의 位相」,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명기, 「'再造之恩'과 조선후기 정치사: 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국문초록

『국조오례의』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되었다. 하지만 약 3세기 동안 예제의 전형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국조오례의』에도 변화의 요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270년이 지난 1744년(영조 20)에 『국조오례의』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국조속오례의』의 편찬이 이루어진 것인데, 새로운 의례서의 등장은 단순한 의례 절차의 변화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가례는 오례, 사대부례는 주자가례의 적용을 받으며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어오던 조선의 의례는 국가의 이념과 사상에 따른 변화를 함께 겪게 된다. 곧 주자성리학의 이해와 실천에 따라 의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일어난 오례의와 주자가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오례의와 주자가례 시행의 충돌을 다음 세 가지 쟁점 위주로 검토해보았다. 첫째, 복제문제는 서인(庶人)의 3년상 문제, 1567년 명종 상(喪)에서의 흑립·백립 문제, 1575년 인순왕후 상과 1577년 인성왕 후 상에서의 오사모·흑각대와 백의관대의 착용문제로 세분화하여 살폈다. 사람들이 주장해오던 서인(庶人)들의 3년상제는 영조 대에 가서야 확립되었고, 졸곡 후 관리들이 집무할 때의 차림이 백모·백대로 정해지면서 흑립·백립 문제에도 주자가례의 적용이 이루어졌다.

둘째, 친영례 시행문제를 살펴보면, 왕은 ‘명사봉영(命使奉迎)’이라 하여 신하가 왕비를 맞이해오고 있었다. 정광필 등은 친영의 예를 반대하였지만,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결국은 1517년(중종 12) 문정왕후를 맞이할 때, 국왕의 친영례가 시행되었다. 중종 대와 선종 대의 시행을 거친 이 친영의례는 영조 대에 가서야 『속오례의』에 「남비친영의」라는 정식 의례로 실린다.

셋째, 16세기 천릉에는 1513년의 소릉(昭陵), 1537년의 희릉(禧陵), 1562년의 정릉(靖陵) 천릉이 있다. 소릉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능인데, 세조가 왕위 찬탈과 함께 종묘에서 폐출시켰던 것을 중종이 복위시키면서 천릉이 이루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요구해온 일이 실현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희릉 천릉은 권신 김안로가 훈구세력인 정광필을 제거하려는 술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 천릉을 통해 중종이 정권을 장악한 척신 김안로의 전횡을 차단하였으며,

정릉 천릉은 명종이 친정체제의 구축을 통해 왕권 확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훈척신과 사림파의 갈등구조를 17세기의 영릉(寧陵) 천릉까지 확장해보면, 의례를 명목으로 한 정치적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조오례의』 개정 논란을 다루었다. 17세기 초반 침류대 시사(枕流臺詩社) 활동을 통한 진한고문파와 당송고문파의 인적 구분을 예학에도 적용해보면, 진한고문파는 남인 또는 서인의 소론으로 연결되고, 당송고문파는 서인 또는 서인의 노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인과 서인의 대결 구도는 17세기 예송문제라는 큰 정치적 사건으로 이어지며, 노론과 소론은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이므로 이 분열을 야기한 『국조오례의』의 개정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 후기 의례서 편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구도는 『국조오례의』 개정에서 다루어지는 학파(學派)·정파(政派)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투고일 2017. 3. 20.

심사일 2017. 3. 31.

게재 확정일 2017. 5. 24.

주제어(keyword) 오례의(五禮儀, The Ceremonies of the Five Rites),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Kukcho oryeŭi*), 주자가례(朱子家禮, Master Chu's Family Rituals), 침류대시사(枕流臺詩社, Chimnyudae Sisa), 진한고문파(the literature from the Qin and Han dynasties), 당송고문파(the literature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 권신(權臣, powerful official), 훈구파(勳舊派, Old Meritorious Faction), 사림학파(士林學派, School of Neo-Confucian literati), 남인(南人, School of the Southerners), 서인(西人, School of the Westerner), 노론(老論, the Old Doctrine faction), 소론(少論, the Young Doctrine), 정구(鄭球, Chōng-gu), 이정구(李廷龜, Yi Chōngku), 김장생(金長生, Kim Changsaeng), 김집(金集, Kim Chip)

Abstracts

Discussion on the Enforcement and Revision of the *Kukcho oryeŏi*

Park, Su-jeong

This paper analyzed the conflicts between 'the Ceremonies of the Five Rites' and 'the Master Chu's Family Rituals' by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topics. The first topic is about costume system, the second family ritual, especially wedding ceremony, and the third 'moving a tomb to a new site.' Among which, costume system is sub-classified into people's three-year mourning, black or white costume in Myeongjong's funeral in 1567, and whether to wear osamo(black silk cap), heuggakdae(black belt made with horn), or baekugwandae(a combination of white costume, crown, and waist band worn) in Queen Insun's funeral in 1575 and Queen Inseong's funeral in 1577.

To look at the wedding ceremony, the king had his servant welcome the queen until the era of King Jungjong of Joseon, which was called as 'MyeongSaBongYoung.' Jeong Gwangphil and others objected to this formality, but finally this was enacted on the king(s), when Queen Munjeongin was welcomed in 1517(Jungjong 12), following the opinion of the Confucian scholars.

To look at 'moving a tomb to a new site' in the 16th century, there were Soneung Royal Tomb in 1513, Hŭineung Royal Tomb in 1537, and Jeongneung Royal Tomb in 1562. 'Moving to the Soneung Royal Tomb' was a realization of what was demanded by Confucian scholars under the name of loyalty and justification. And 'moving to the Hŭineung Royal Tomb' was started by a powerful official Kim Anro's stratagem to remove the meritorious elite Jeong Gwangphil, but finally the dictatorialness of the maternal relative Kim Anro was punished as a result of this ritual when Jungjong seized power. 'Moving to the Jeongneung Royal Tomb' resulted in Myeongjong's royal authority by establishing his own direct rule. And if expand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Old Meritorious Faction and the School of Neo-Confucian literati into the 'moving to Yeongneung Royal Tomb' in the 17th century, political confrontation under the name of rites can be found.

Next, it dealt with the controversy of the revision of *Kukcho oryeŏi*. The discussion of school of thought and faction dealt in the revision of *Kukcho oryeŏi* was a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origins by the rite legislators in the late Joseon Dynasty.